

PB-31

가공밥용 일반계 다수성 복합내병성 벼 ‘이루미’ 개발이지윤^{1*}, 조준현¹, 이종희¹, 박노봉², 박동수¹, 박병명¹, 오인여¹, 조수민¹, 송유천¹, 고종민¹¹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²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서론]**

식생활의 다양화로 2018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1988년 122.2kg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쌀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여가활동 활성화로 간편식인 가공밥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공용 원료곡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량성이 높고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가공밥 전용 벼 이루미가 개발되었다.

[재료 및 방법]

이루미는 '10년 하계에 일반계 다수성인 보람찬을 모본으로, 천립중이 큰 드래찬과 한마음, 밥맛이 양호한 동진1호를 삼원교배한 YR28834를 부분으로 인공교배를 실시하였다. '10/'11년 동계1차에 F₁을 양성하여, 2010/2011년 동계2차에 F₂ 집단을 육성하였다. 집단으로 선발된 400 개체를 '11년 하계, '11/'12년 동계, '12년 3년동안 1개체 1육종법으로 세대를 진전시킨 후 가을에 188계통을 선발하였다. '13년 188계통 중 이삭이 길고 벼알이 크며 복합내병성인 YR29184-B-B-B-3를 선발하여 '14년 예비선발시험과 2년간의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밀양309호의 계통명이 부여되었다. '16년부터 '18년까지 3년동안 밀양, 대구, 전주 3개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였다. 5월30일에 재식거리 30cm×12cm로 1주 5본씩 이앙하였고, 시비량, 재배법 및 농업적특성조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 및 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루미는 영·호남평야지 보통기 다비재배에서 평균 출수기가 8월 12일인 중만생종이다. 간장은 72cm로 보람찬보다 크고, 주당수수는 12개로 보람찬보다 3개 정도 적고, 수당립수는 136개로 보람찬보다 많다. 등숙비율은 70.3%로 보람찬보다 낮았으며, 현미천립중은 22.9g으로 보람찬보다 약간 무겁고 현미장폭비가 1.81로 보람찬보다 크다. 냉수구 출수 지연 일수와 임실률은 보람찬보다 각각 짧고 높았으며, 등숙기 내냉성은 보람찬과 비슷하였다. 불시출수는 없었으며, 수발아율은 12.7%로 보람찬보다 낮았다. 벼키는 보람찬보다 크나 3절간장이 짧고 좌절중이 커서 도복에 강하였다. 도정률, 백미완전미율 및 완전미도정수율은 보람찬과 비슷하였다. 쌀알은 복백이 약간 있으며, 단백질과 아미로스함량은 각각 6.3%와 19.6%로 나타났다. 즉석밥 관능검정에서는 보람찬보다 색상이 양호하고, 밥맛, 촉촉함 등이 보람찬보다 우수하였다. 이루미는 쌀수량이 666kg/10a로 보람찬보다 3% 증수하였다. 이루미는 일반계 초다수성 품종으로서 즉석밥 등 가공밥에 적합하여 국내 쌀가공산업 발전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nitia@korea.kr